

David Schmidt

CAPSULE INTRODUCTION

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

David Schmidt 교수는 프로그래밍언어와 정적분석분야의 리더이다. 이 분야 관련한 탑클래스 학회(POPL, ESOP, SAS, VMCAI 등)의 자문위원/프로그램위원장/프로그램 위원등으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다. 화려한 연구 결과로 빛을 내기도 하지만 항상 누구에게나 성심성의하는 모습에 학계사람들이 의지하고 여쭙는 편안한 신사/선비같은 분이다.

내가 Schmidt교수를 만나고 알게된 건 두 가지 경로였다. 하나는 책을 통해서였다. 내가 유학을 시작한 지 두번째 학기였던 1988년 1월이었다. 프로그래밍 언어이론을 수강했고, 그 때 교재로 사용한 책이 Schmidt교수가 저술한 *Denotational Semantics: A Methodology for Language Development*이었다. 1986년 출판된 책이었다. 돈이 궁한 유학생이었던 나는 학교의 복사실에서 그 책을 복사해서 제본하고 다닌 책이었다. 이 때 그야말로 생소했던 “denotational semantics”¹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다.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의 내용이 재밌다고 느끼게 해 주었다. 그의 책은 친절했고 정리하기 좋았다.

Schmidt교수를 알게 된 두번째 경로는 당연하지만, 학회활동을 통해서였다. 실제로 만난 Schmidt교수는 인상깊었다. 학술회의 프로그램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Schmidt교수는 항상 “솔직하고 성심성의한” 모습이였다.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의 논문도 읽고 심사하게 된다. 이 경우 심사위원은 대개 아는 척하게 된다. 대개 어느 하나만 보거나, 심하게 일반화하거나, 아니면 아예 잘 못 리뷰할 수 있음에 단혀있게 된다. 그러나 그의 심사는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솔직하게 그 부족함을 밝히고 심사를 했고 논문심사 회의에서 발언했다. 이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동료와 후학들의 신뢰를 받는 것 같다. 그리고, Schmidt교수의 발표들은 쉽고 친절하다. 어려운 내용임에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데 정평이 나 있다.

최근 Schmidt교수는 요약파싱(abstract parsing) 기술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. 문자열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상상하자. 프로그램이 문자열을 만들고 붙이고 잘라내고 하는. 주로 웹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문자열로 만들고 실행시킨다. 그런데,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자열이 제대로 생긴 프로그램이어야 할텐데, 이 요구조건을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? 요약파싱이라는 기술이 좋은 해답이 되고 있다. 기존의 파싱(parsing, 문법검증)기술을 응용하고 있다. 요즘 연구하는 사람이 드문 파싱기술을 첨단 웹프로그램 분석에 적용해서 명쾌한 답을 만들어내고있다. 좋은 기술은 항상 응용될 수 있는 “클래식”기술이다. 파싱(parsing)기술이 한 후보일 것이다.

Schmidt교수는 현재 Kansas State University 의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로 계신다. Schmidt교수는 매우 한국음식을 유난히 좋아하신다.

이 광근, 2010년 10월

¹Dana Scott(1976년 Turing Award 수상)이 제안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인 모델.